

교회 목표

- 1. 천국일꾼을 키우자
-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윤명식
편집국장:손경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300 FAX: 563-3932
사서함: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본 교회 장로들 매주일 오후 4시에 기도회 전 교회 교인들이 뜻 모아 함께 동참을

우리 교회가 위기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 하겠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할 때이다.

이미 우리 교회는 24시간 연속기도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오고 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의 조짐을 볼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불안감이 우리들을 전율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의인 열 사람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밤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없으며 새벽기도회와 철야 기도회 이후 컴컴한 길을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이다.

매일 신문의 사회면에 게재되고 있는 범죄 현상은 인간으로서 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생명 경시 풍조와, 금권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무례함 때문에 질서는 파괴되고, 힘센 자가 약한 백성을 억누르는 공포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제 이 나라 교계에는 모르드개와 같은 용기 있는 백성,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과 충성심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의 위기를 앞에 놓고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겠다. "의와 평강과 화락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의 간절한 기도와 "정의롭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주 사회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많이 집약되도록 기도의 불씨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 일에 온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고 어떤 위치,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뜻을 모

아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기적을 유출해야 하겠다.

이미 본 교회 장로들이 지난 8일부터 오후 4시가 되면 당회실에서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국가와 민족, 교회의 부흥, 믿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다.

제5교구 새가족 환영 및 친교 모임

· 제5교구에서는 교구 식구들이 함께 모여 자문어가는 92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친교를 나누고자 아래와같이 작은 모임을 마련하였습니다.

교구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11월 22일(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만나홀

충현프리즘

◎...진중세례식이 지난 14일(토) 오후 2시 연무대 군인교회당에서 있었다.

이날 세례식에는 장병 4,096이 세례를 받았는데 집례를 맡았던 우리 교회 목사, 장로님들이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다. 한 명의 지도자가 믿음이 돈독한 장로였기에 조직과 명령 단체인 군대가 놀라우리만치 복음화 되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간절한 기도, 성

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을 근간으로 한 "우리들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김창인 원로목사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4천여명의 장병들에게 전달할 때 군복음화는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고 진실하며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국가안보와 정신 무장을 새롭게 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를 음미한다.

어린 유치부 개구장 아이들이 제대로 허물림이 되지 않아 "예수님 사랑해요"가 투박한 음성으로 들려올 때, 같이 예배를 드린 부모들이 함께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은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권한(?)인지 모른다.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고사리손들을 흔들어가며 노래하고, 춤추고, 얘기하는 어린 꼬마들의 꾸밈없는 표정 속에서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게 되고, 어린 투정만 부릴 줄 알았던 이들의 의젓함에 충현교회 유치

부 교육의 완벽함을 느끼게 되었다.

추수감사 특별 순서에 참여한 유치부 재공동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이들을 지도한 교사진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

◎...92년도 마지막 성찬식이 지난 주일 있었다. 이날 수찬자들의 수는 8,198명으로 집계되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화 한 포도즙과 떡을 들면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웃음을 여미게 하였다.

카메라 초점



▲ 추수감사절인 지난 11월 15일에는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 지난 11월 14일 우리 교회 주관으로 논산 연무대교회에서 거행된 세례식.

전국 목회자세미나 제5학기 종강

전국 목회자세미나 제5학기가 지난 11월 16일(월) 종강예배를 드림으로써 끝났다.

지난 9월 14일 개강한 이번 학기는 "목회와 교회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주 동안, 우리 교회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빌립 보서를 강해하였고 이종성 박사, 김삼환목사, 임영수 목사, 홍정길 목사, 김충기 목사, 정진경 목사, 조용복 목사, 김동익 목사, 나김

나경일 목사, 김홍도 목사, 정훈택 목사 등이 강의를 맡아 진행되어 835명이 수료하였다.

이번 학기는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교회 성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함으로써 전국 교회 부흥에 자극제가 되었다.

다음 학기는 93년도 3월 8일에 "목회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개강할 예정이다.

찬양대원 모집

93년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대에서 봉사할 대원들을 모집한다.

· 자격
우리 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성도
· 모집기간
11월 22일~12월 13일
· 신청서 : 사무국에서 비치

청년1부 특강

청년1부는 청년들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강을 마련하였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주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요구"
· 강사 : 장봉생 목사(고등부 지도)
· 일시 : 11월 22일 오전 11시
· 장소 : 교육관 514호

선교사님께 성탄 선물을 보냅니다

해외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보낼 성탄 카드 및 헌금을 사무국 총무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송 관계로 카드는 12월 첫째 주일까지, 헌금은 둘째 주일까지 접수하오니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위원회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마8:28~34)

1. 서언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도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 있으나 마태복음에서는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기록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두 사람이라고 했고, 돼지떼가 많다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2천마리가 되더라고 기록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가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그것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신 이유는 귀신들린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옷을 벗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옷을 벗고 다니며 길바닥을 해도 죄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세번째로 29절을 보니 소리질러 말했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에게 넣으셨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결한 짐승이었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악령이 거할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자 군대라고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다.

4. 세 가지 종류의 기도

본문에서 세 가지 종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기로 간구했습니다. 귀신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로 귀신은 더러운 삶을 계속하기를 원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둘째,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참 기도입니다.

셋째,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은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8:34) 돼지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으신 것을 보고 시내로 가서 모든 일을 알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지역에서 떠나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떼가 몰사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때때로 이런 손해가 옵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주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들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함께 있게 해달라는 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있었어도 오늘날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귀신이 들렸다고보다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의 영향권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6. 귀신의 역사 방법

귀신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을 교만하게 합니다. 심지어 신앙적인 교만도 갖게 합니다. 두번째는 우리들로 하여금 질망케 합니다. 세번째로 귀신은 우리들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도 귀신은 우리들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7. 결론

마지막 결론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귀신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것인가입니다. 귀신은 교육받아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법으로도 힘으로도 안됩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나사렛

귀신의 세계까지 지배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론 아홉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실천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사는 귀신들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번째, 수많은 돼지떼들을 죽게 했던 이유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손해나 희생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생명의 존귀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돼지 2천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 귀신들린 자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린 자를 통해서 귀신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 28절을 보면 귀신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묘지는 굴을 뚫고 그곳에다 시체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린 사람이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 불결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소위 부정이 탄다거나 불결하다고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린 자의 첫번째 특징은 죽음을 좋아하고 불결한 곳에서 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귀신들린 자는 굉장히 사납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결박을 해놓아도 금방 끊어버려서 도무지 가두어둘 수가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귀신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3. 예수님의 권능

한편 이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권능은 귀신의 권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권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회터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마8:32)

첫째로, 예수님의 권능 앞에 귀신도 순종을 합니다.

귀신들린 사람과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귀신의 영향은 우리도 때때로 받습니다. 그러나 귀신들린 자는 완전히 귀신의 노예가 되고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떨면서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려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은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씀을 역이용하는 것이

5. 귀신과 질병

질병이 모두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사마니즘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와 귀신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귀신들린 자와 병자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귀신들렸다는 것이 정신병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신병이 귀신들린 것과 동일하다면 성경의 힘으로 기도를 해서 쫓아내면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유사성은 있지만 귀신들린 것과 다중인격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네번째로 귀신들렸다는 말은 악령의 영향을 받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 귀신은 바로 악마, 사탄입니다. 바로 그것의 하수인이고 부하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계를 보면 맨 위의 두목이 앓뱌, 사탄, 악마입니다. 그것의 하수인은 귀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도 귀신들린 자는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손해도 감수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입니다.

두번째는 인생은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자도 귀신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술과 마약과 섹스와 도박과 노래와 춤 등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지배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신들린 사람이 나온받은 뒤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귀신들린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심으로 나는 자유함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과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도무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악령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아닐지는 몰라도 악령의 영향권 안에서 악령에게 시달림을 받은 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전파하면서 내년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시리즈1 ◀

'92 전도 결산 부족한 전도회 들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김해규 목사(전도위원회 지도)

1. 들어가는 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무능하고 부족한 전도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전도회는 연초에 우리 교회의 복복 방침에 따라 92년도의 중점 사업의 방향을 몇 가지로 정하였다. 이것은 물론 91년도의 사업의 결과를 타산적적으로 삼고 한 것이었다. 첫째, 전도중심적인 전도회를 만들자. 둘째, 모든 회원들이 다 참여하는 전도 활동을 하자. 셋째, 지속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는 종합적인 전도 방법을 사용하자. 넷째, 직능별 전도회를 활성화하여 전도의 다양성을 도모하자. 다섯째, 전도대원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파송하자. 여섯째, 북한선교 및 세계선교의 역량을 키우는 전도회로 만들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월 12일 전도위원 및 실행위원을 임명하고 1월 22일에는 전도회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도지침을 홍보하였다. 그리고 전도회원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예배를 3월 1일 찬양예배시에 드렸다. 이어서 힘써 일한 결과, 하나님께 죄송한 점도 많고 목표에 미달한 것도 많지만 또한 영광이 된 일도 허다하다.

2. 사업 결과 보고

(1) 교회배가운동 추진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교회의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가운동과 총동원 전도 활동을 가장 잘 한 교회를 탐방하기 시작했다. 92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부산, 대구, 대전 등지를 다니면서 면밀한 현장답사를 했다. 이어서 서울 시내의 교회들을 탐방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소득을 올렸다. 이러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3월까지 배가운동의 초안을 작성하고 홍보에 들어갔다. 1차, 2차 태신자 작정을 계획대로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도 분위기가 조성에 많은 보탬이 되었고 또 열매도 있었다.

6월말이 되면서 11월 1일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위한 총동원 계획을 분과별로 작성하였다. 9월이 되면서부터는 각 분과별로 이 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도회는 각 지회별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에는 해당 교구 지역에서 가두전도, 축호전도 등 활발한 전도 활동을 벌였다.

11월 1일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 만여명의 초청대상자가 교회를 방문했으며, 천칠백명이 결신카드를 제출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소독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온 교회가 더욱 단합하는 계기가 되

(3) 농어촌 전도대 파송 및 농촌 교회 농산물 팔아주기운동

8월초부터는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13개 전도팀이 뜨거운 전도 활동을 폈다. 그 결과 농어촌 미자립 교회가 힘을 얻고 많은 결신자를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참여했던 대원들이 전도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강원도 용산교회의 감자 8백 상자를 우리 교회로 가져와서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경찰 전도를 위한 길을 모색하는 등 경찰전도에도 노력을 하였다.

(5) 전도대원 훈련

봄철과 가을철 두 번에 걸쳐 충청전도대 주관으로 실제적인 전도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하였으며, 또한 전도회원들의 재교육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도의 정병을 양성하고 전도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효과를 창출했다.

(6) 북한선교를 위한 노력

다소 식어진 북한선교를 위한 준비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3월 17일 전도회원 5백여명이 모여 전방을 시찰하고 북한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회를 가졌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북한선교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활짝 꽃이 필 날이 올 것이다.

있다. 그러나 이를 이루어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기쁘히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도회가 더욱 성숙되어감을 볼 수 있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전진해가는 전도회가 된 것을 감사드린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 전도위원장으로서 수고하신 최상규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실행위원들, 지회 회장단을 비롯한 많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3. 93년도를 위한 전망

92년도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이 몇 가지 있다. 직능별 전도회의 다양화와 활성화이다. 이미 조직된 실업, 의료, 군, 법조, 학원, 문서, 특수전도회의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매스컴, 체육, 예술, 경찰, 금융 등 다양한 직능별 전도회의 조직을 통해서 각 계 각층에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있게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또한 전도회의 지역 중심 전도 활동이다. 그 전도회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고도 종합적인 전도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봉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전도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구별로 구심점을 구축하면서 자발적인 전도대원을 계속

훈련, 충당하면서 활동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전도회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기 전도의 열매를 보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전도회원들이 노련한 전도자, 유능한 양육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나태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사용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한 해에도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줄로 믿는다. 우리를 더욱 낫추시고 훈련시키시어 복음으로 남북한이 하나되는 역사에 동참케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미려한 힘이어나 보탬이 되게 만들어주시기를 우리 모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 92 예수 사랑 큰 잔치는 금년도 전도 활동을 결산하는 전도 잔치였다.



▲ 민족 복음화를 위해 파송된 하기 농어촌 전도대 활동

◀ 92년도에는 북한선교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모색되어졌다.

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지교회, 지원교회, 지원처에 대한 계속적 지원

91년도에 농어촌에 세운 충청 지교회와 미자립 농어촌교회, 그리고 특수전도기관에 대한 지원을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한 해였다. 전도회 지회들이 회비로 낸 과반수 이상을 이를 위해 아낌없이 지출했다. 재현교회에 대한 봉고차 증정, 그리고 대신충현교회의 대지 구입 및 성전건축 등 힘겨운 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답사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고 도와주는 등 참으로 전도회원들이 최선을 다해주었다. 우리 충청교회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교회임을 보여준 행동이요 사랑의 빛을 밝힌 뜻 깊은 일이었다.

작업 판매해주는 일도 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다.

(4) 군대 및 경찰 전도

우리 교회는 해마다 군복 후보생들을 초청하여 훈련하는 일을 군복음화후원회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3월 19일과 20일에 60여명의 군복들을 훈련하였으며, 3월 20일에는 군복장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지면서 군선교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여러 군부대를 방문하여 전도하고 지원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군복음화에 조그마한 보탬이 된 줄로 믿는다. 특히 지난 11월 14일에는 육군본부 계령교회를 방문하고, 이어서 논산 연무대에서 4,096명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경험이며 은혜였다. 또한 서울시 경찰청, 서초

(7) 교회내 봉사 활동

참으로 감사한 것은 교회의 각종 행사 때마다 전도회원들의 안내, 식당 봉사, 노력 봉사 활동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가꾸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마이 주일을 맞이하여 소망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꽃을 달아주고 위로잔치를 하는 모습은 참으로 호모했다.

(8) 지회별, 연합회별 활동

이렇게는 회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전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다른 곳에 지원해야 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는 지회들의 모습은 감사한 일이었다. 특히 지난 6월 17개 교구에서 22개 교구로 증설됨에 따라 전도회 지회도 126개 지회에서 154개 지회로 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독자의글

열 매

김경환 집사(아멘찬양대원)

내 마음의 빈 밭에는
희진함이 있어
씨앗을 심어 보려네.

내 마음의 빈 밭에는
공허함이 있어
씨앗을 뿌려 보려네.

그 밭은 기름진
충현의 밭.
믿음의 씨앗 심어
성령으로 가꾸면
알찬 열매도 맺히리.

농부가를 부르며
김매기를 하듯이

우리들도 찬송가를 부르며
성령의 열매 맺어 보세나.

내 비었던 마음에
한아름 풍요가 있어
씨뿌리고 가꾸는
충현의 밭에서

한결에 잡초인 양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뿌리가 있기에
열매도 있겠지.

심고 가꾸면
거두는 이 여호와시니
그 기쁨 충만하여
하늘나라 닿겠네.

성경 여덟째권 룯기

1. 저자 및 연대
룯기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으며, 유대인 진술에 의하면 룯기는 사무엘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한다.

또한 룯기의 기록 연대도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윗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나 고대 관습을 설명하는 것을 근거로 기원전 4세기 이후나 바벨론 유수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2. 역사적 배경
룯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3. 중심사상
첫째로, 룯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용납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룯기가 기록되었었다. 본문에서 가장 여러번 강조된 것은 룯기 이방인이라는 점이

있다. 이는 민족적 장벽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로, 룯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방 며느리 룯과 시어머니 나오미 사이의 신실함이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나오미와 연결되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룯은 확고하고 강한 사랑으로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부양했다.

셋째로, 모압인들이 어떻게 해서 다윗의 족보에 포함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룯기가 기록되었었다.

넷째로, 룯기는 당시의 관습을 말해준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관계, 곡식의 재배와 추수기,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둔 이삭을 줌의 것, 추수에 관한 세부 사항, 친족의 책임과 특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섯째로, 룯기에서는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즉 기근, 죽음, 고독, 방랑, 흔들리지 않는 정절이 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4. 정경상의 위치
룯기가 성서의 기록된 책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보편구원론이라는 주제 때문이다. 70인역에서는 역사상 동일한 시대를 다루고 있는 사사기 다음에 룯기를 두고 있다.

5. 개요
- (1) 룯의 결심(1장)
 - (2) 룯의 상황(2장)
 - (3) 룯의 호소(3장)
 - (4) 룯의 상급(4장)

● 구역예배 ●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양육특별공과
(1992. 11. 27)

제3주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

· 본문 : 요한복음 15장 1절 ~ 12절 · 찬송 : 235장, 241장
· 요절 :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주시는 것을 듣는 것과 내 편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1. 성경의 내용

(1) 성경은 () 사람들이(벧후1:21) ()으로 기록하고(딤후 3:16) ()이 그것을 모으신(사34:16) 책입니다.

(2) 위의 구절들을 볼 때 결국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을 벗어나는 다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없습니다).

· 성경은 40여명의 저자들이 1,600여년동안 세 대륙에 걸쳐서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신약은 4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2.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

(1)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성경 말씀이 주는 효능과 유익 일곱 가지를 말해보십시오.

(2) 구약의 시인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았습니까?(시119:97, 20)

(3)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면서 믿었습니까?

“말씀을 (행16:14), (행8:28), (행17:11), (신6:6)”

·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히 외우는 성경 암송입니다.

또 묵상의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알게 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

본문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위한 3단계 방법을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1단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세속의 추악함으로부터 ()을 얻음(요15:3)

·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오직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2단계〉 말씀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무엇을 구하든지 ()을 받는 삶(요15:7)

·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기도는 들으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3단계〉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여 ()을 많이 맺고 주님의 ()가 되며(요 15:8), 주님의 () 안에 거하게 되는 생활(요15:10)

· 결국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헌신된 영적 생활을 의미합니다.

◆ 적용

(1) 축복받는 말씀의 생활을 위하여 매일의 묵상 훈련을 적극 권합니다.〈흔히 이를 QT(Quiet Time : 조용한 시간)라고도 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십시오 또한 자신의 골방에서 주님과 나만의 조용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2) 교회학교와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3)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다음의 항목을 활용하십시오:

SPACE 방법 - 고백할 죄(Sins to confess), 붙잡을 약속(Promises to claim), 피해야 할 행동(Actions to avoid), 지켜야 할 명령(Commands to obey), 따라야 할 모범(Examples to follow)은 무엇입니까?

(4)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에 관한 위의 성구들을 암송하고 사용하십시오. 외우고 있는 말씀의 힘으로 모든 의심을 물리치십시오.